

# KIA 전상현, 타이거즈 최초 4년 연속 10홀드 쾌거

통산 95홀드...100홀드 달성 눈앞  
시즌 초 부진 딛고 안정감 되찾아  
"기록 신경 쓰지 말자" 다짐 호투



KIA 타이거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구원 투수 전상현(29)이 또 한번의 기록에 도전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거듭나고 있다.

올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일어서 필승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전상현은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7회초 무사 1·3루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변화구와 직구를 골고루 섞어 던지며 삼성 김영웅과 박병호를 연달아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했다. 이어 강민호를 우익수 뜯공으로 처리, 이날 1이닝 2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팀의 6-3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 전상현은 호투와 함께 값진 기록도 세웠다. 이번 시즌 10번째 홀드를 챙기며 4년 연속 10홀드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는 KBO리그 15번째이자 타이거즈 사상 최초 기록이다.

2022년과 2023시즌 각각 16홀드, 13홀드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무려 19홀드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두자릿 수 홀드를 기록한 전상현은 개인 통산 100홀드 고지를 앞두고 있다. 전상현은 통산 95홀드를 기록 중으로 올해 안에 기록 달성이 전망된다. KBO리그에 홀드 개념이 도입된 이래 KIA에서 100홀드에 오른 선수는 없었다.

지난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4라운드 38순위로 KIA에 입단한 전상현은 2019년부터 팀의 필승조로 거듭났고 해당 시즌 1승 4패 15홀드 평균자책 3.12를 기록하며 신인왕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2020년에는 문경찬 대신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았고 2승 2패 15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 2.45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정해영이 마무리 투수가 되자 그는 셋업맨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필승조로 활약하며 기록을 써내려갔다. 2023년에는 64경기 13홀드 평균자책 2.15로 활약했으나 지난해에는 66경기에서 19번의 홀드를 기록했다. 홀드는 늘어난 반면 평균자책도 4.09로 훌쩍 뛰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 시즌 초반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시즌 개막 이후 한 달 간 10경기에 출전해 8.1이닝 동안 7실점 하며 평균자책 6.48까지 치솟았다. 5월에도 월간 평균자책 4.85를 기록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투구를 선보였다.

전상현은 "시즌 초부터 결과값이 좋지 않아 자신감과 자존감이 모두 떨어졌고 기록을 스스로 보지 않지만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전광판에 기록이 나오니까 답답한 마음도 들고 조금씩 방어를 잃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기록에 신경쓰지 말고 맞더라도 자신있게 던져보라고 생각하게 됐고 전상현의 컨디션도 그때부터 올라왔다. 최근 한 달 간 그는 17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평균자책 2.16을 기록하며 1승 4홀드로 호투를 선보이고 있다.

구단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 수 홀드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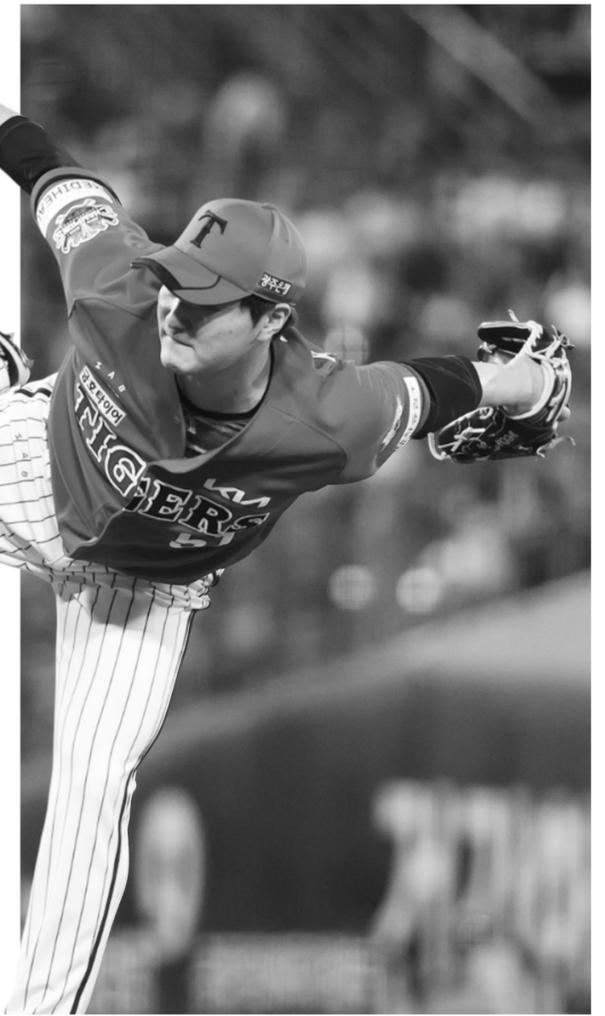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전상현은 "구단에서 기회를 많이 준 덕분에 가능했고 부진이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기록을 더 세울 수 있었다"며 "부진하는 동안 기록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저만 잘하면 된다고 빨리 깨달았으면 더 팀 기록들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시즌 초반에 제가 까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팀한테나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부분이 많았다"며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는 앞으로 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팀 승리에 기여하며 남은 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핵심 필승조로 자리잡은 전상현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기록을 이어갈 지 기대가 모인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bo.com

KIA 타이거즈 전상현이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 이정후, 2경기 연속 안타...샌프란시스코는 3연패 늘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 소속 국가대표 선수 격려 방문

1번 타자 중견수 출전...4타수 1안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서 2-3 패배



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득점을 성공했다.

이후 3회 2루 직신타, 4회 유격수 땅볼로 잡힌 이정후는 7회 중견수 라인 드라이브로

아웃됐다.

이정후는 팀이 2-3으로 뒤진 9회 선두 타자로 나왔고 좌전 안타로 출루하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정후는 이틀 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경기 5타수 1안타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샌프란시스코는 1사 만루를 이어가며 동점 또는 역전 기회를 잡았으나 스미스가 좌익수 플라이, 케이시 슈미트가 삼진을 당해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

민현기 기자

양궁 안산 등 8명 격려  
광주체육 지원 약속

광주광역시체육회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을 찾아 격려하며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힘을 보탤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전갑수 체육회장과 김택수 선수촌장, 시체육회 임원, 종목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격려를 받은 광주 소속 선수는 양궁 안산(광주은행), 이승운(남구청), 김수린(광주시청), 산악 최종빈(더월), 핸드볼 서아루(광주도시공사), 수영 다이빙 정다연(광주시체육회), 체조 송채연(광주체중), 광주 출신 체조 문건영(충남체육회) 등 8명이다.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김택수 선수촌장 등이 지난 1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광주 소속(출신) 국가대표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방문단은 양궁, 핸드볼, 탁구, 육상, 빙상 등 종목별 훈련시설을 돌아보며 선수촌 관계자들과 훈련 상황과 국제대회 준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갑수광주체육회장은 "여러분은 고향의 명예를 넘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의 주역"이라며 "광주체육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한

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선수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후보 선수, 꿈나무까지 포용하는 선수촌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약속했다.

최동환 기자

##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19일부터 팬 투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현역자 선정을 위한 팬 투표와 미디어 투표를 19일 시작한다.

'K리그 명예의 전당'은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K리그의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2023년 신설됐고, △선수(STARS) △지도자(LEADERS)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2년마다 현역자를 선정한다.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정훈, 김도훈, 김병지, 김은중, 김주성, 김현석, 데안, 라데, 박경훈, 사샤, 서정원, 신의손

(사리체프), 고(故) 유상철, 윤상철, 이운재, 이태호, 정용환, 최강희, 최진철, 황선홍(이상 가나다순) 20인이 후보로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투표(40%), 구단 대표자 투표(20%), 미디어 투표(20%), 팬 투표(20%)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4명이 최종 현역자로 결정된다.

팬 투표는 19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9일간 진행된다.

투표를 원하는 팬들은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이후 메인 화면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현기 기자

## 전남체육회, 하반기 위원회 위촉장 수여... 체육행정 안정·혁신 다짐

171명 위원 위촉

전라남도체육회가 민선 2기 하반기 각종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체육회는 18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후반기 각종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17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기존 위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능에 따라 일부 위원을 재배정하고, 군단위 체육인 추

천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교육위원회 등 15개 위원회에 소속돼 전남 체육 발전을 이끌게 된다.

수여식은 개식, 국민의례, 인사말, 위촉장 수여, 2025년도 전남 체육 동향 보고, 의견 수렴 및 답변,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책 발굴,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인 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전남체육회는 이날 수렴한 정책 제안과 의견을 향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견을 체육행정에서 폭넓게 반영해 전남 체육의 혁신과 도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